

4만평 건물 위에 ‘빛의 숲’…살아 움직이는 최첨단 문화 생태계

볼수록 매력있는 문화전당

건물 지하 배치로 옥상 정원

20~30년생 배롱꽃 만발

‘사색의 길’ 시민 쉼터로

건물 표면 스테인리스판

시시각각 빛의 스펙트럼

자연과 하나 된 56개 ‘天窓’

창틀없는 360m 창문

공간 변경·배치 자유자재



20~30년생 배롱나무 꽃이 만개한 문화전당 ‘사색의 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별관 등 6개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건물이 지하에 배치돼 있다. 4층 규모의 건물이 지하 25m 깊이에 들어서 있는 셈이다. 어린이문화원과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은 지표 아래에 있다.

재미교포 건축가 우규성 선생은 문화전당을 광주 정신이 녹아있는 공간(옛 전남도청 등)과 새로운 건축물을 결합한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건물들을 지하에 배치했다.

문화전당 시설과 공간 곳곳에는 ‘빛의 숲’이라는 문화전당 건축 철학이 구현돼 있다. 건물들이 지하에 배치된 덕분에 무려 4만여 평에 달하는 도심 녹지공간이 탄생한 게 대표적이다. 시민들이 건물 지붕의 옥상정원에서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문화전당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은 지하에 있는 어린이문화원과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건물의 지붕이다. 일종의 거대한 옥상화분인 셈이다. 이 공간에는 진달래 등 45종 6만6103그루의 관목과 교목(1961주)이 자라고 있다. 어린이문화원 옥상에 마련된 ‘어린이 놀이마당’은 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쉼터로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문화중도 시추진단은 문화전당 옥상을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최저 70cm에서 최대 140cm 두께로 흙을 깔았다.

문화창조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사색의 길’은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가 되고 있다. 나무 계단과 아담한 화단으로 조성된 이 공간에는 20~30년생 배롱나무 꽃이 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빛의 숲’을 상징하는 문화생태공원이다. 문화창조원과 정보원 옥상에 조성된 이 공원에는 시각형 유리시설물인 천창(天窓) 56개가 설치돼 있다. 천창(天窓)은 주간엔 태양광을 지하 4층에 있는 건물까지 끌어들이고, 밤에는 역으로 불을 밝히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문화전당에서 시선을 압도하는 풍경은 건물들의 표면이 자잘한 구멍이 뚫린 스테인리스판으로 뒤덮여 있다는 점이다. 이는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스테인리스판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문화전당에서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첨단 공방들이 도입됐다. 어린이 문화원에 창틀이 없다는 게 대

표적이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창틀 없이 케이블에 유리를 고정하는 케이블 넷(Cable net)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가로 2.5m, 세로 1.6m 크기의 대형 유리판 300여 개가 케이블에 고정돼 360m에 달하는 외부 벽을 만들었다.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의 공간 높이는 지상에서 천정까지 18m에 달해 대형 작품을 설치·전시할 수 있다.

문화전당의 공연무대인 예술극장은 공연 무대를 야외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벽을 만들지 않고 접이식 대형 유리커튼(Big Door)을 설치했다. 폭 32.5m, 높이 14.65m에 달하는 유리커튼을 접으면 야외에서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전당이 돋보이는 점은 ‘지금 현재’의 용도로만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생명력을 갖도록 공간을 분할하고 구획지는 부분들을 최소화한 것이다.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내부 공간을 변경,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창조원과 정보원 옥상에 조성된 공원에는 시각형 유리시설물인 천창(天窓) 56개가 설치돼 있다. 천창은 주간엔 태양광을 지하 4층까지 끌어들이고, 밤에는 불을 밝히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시아문화원 이달 출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위태, 운영할 아시아문화원이 조직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최근 공개채용을 거쳐 아시아문화원에 근무할 56명의 정규직 직원을 선발하는 등 본격적으로 조직 구성에 들어갔다. 아시아문화원의 정원도 96명으로 확정돼 나머지 40명도 연말까지 충원할 계획이다. 추가 충원은 전당 부분 개관 이후, 전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국내외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입직원 56명의 신원조회 등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9월 중순쯤이면 조직 구성을 위한 준비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문화원을 이끌 선임 원장이 누가 올지도 관심이다. 5월 문화예술계 인사 등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원장 후보가 바뀌면서 선임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3~4명의 인사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

즐거라! 공연·축제

5일 밤 날새기 ‘야숙극장’…유아 연극 ‘베이비 드라마 달’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선보이는 공연·축제의 첫 관객이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4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되는 아시아예술극장 개관페스티벌 상연작은 22개국 33편이다.

‘당나라 승려’ 등 세작품을 공연하는 차이밍량은 5일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객과 날을 세는 ‘야숙극장’을 선보인다. 5·18민주평화기념관(옛 전남도청)에서 2013 베니스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인 ‘파돌이 개’를 함께 관람하며 영화 평론가 정성일, 태극 감독 아키타카 위라세타쿤과 대담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새롭게 해석한 브렛 베일리의 오페라 ‘맥베스’와 리카르도 바르티스의 ‘바보 기계’도 눈길을 끈다. 또 전당 야외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한 와엘 사키의 ‘카바레 십자군’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극장측은 또 관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으로 광주의 8~14세 어린이 16명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팀 에젤스의 ‘밤이 낮이 된다’, 동구에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관객들을 초청하는 사키구치 교헤의 ‘제로 리퍼플릭’을 소개했

다. 극장측은 대부분의 공연이 끝난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작품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어린이 문화전당’으로 불리는 어린이문화원은 개관행사로 4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공연문화축제를 비롯해 11개국 41개 작품을 선보인다. 어린이 문화원이 추천하는 작품은 인형극 ‘갈갈 나무’다. 멀티미디어 세미 뮤지컬인 이 작품의 주인공은 파니다. 파나가 인형 ‘곰곰이’를 잃어버린 뒤 이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우정을 나누는 동심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베이비 드라마 달’〈사진〉은 국내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유아대상(생후 10~30개월) 연극이다. 어린이문화원이 ‘아이가 생애 처음으로 보는 연극이 될 것’이라며 소개하는 추천작이다. 우주선을 타고 달을 찾아가는 아이의 설렘과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말레이시아 사파리 열록말 책’은 사파리를 망치려는 밀렵꾼에 대항하는 열록말 책과 친구들의 생존기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조·연구·교육·공연·놀이…문화전당 5개원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교류·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을 지향하는 공간이다. 광주항쟁의 3대 정신인 민주·인권·평화를 아시아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한다. 대표적인 상설전시 프로그램은 가정 ‘열혈간의 나비떼’다. 광주항쟁 열혈간의 이야기를 기·승·전·결의 서사구조에 따라 극장식 감성체험이 가능한 22개 전시콘텐츠로 구성된다. 민주인권평화기념관과 방문자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아시아 각국 정부, 문화예술기관 등과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공적개발원조(ODA)를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 연구·아카이브·교육센터를 지향한다. 스토리·문화·조형과 상징 등 아시아 각국 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차 가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는 수집·분류·연구하는 기능과 문화기획·예술가 등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맡는다. 아시아 문화자원은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오프라인), 컬처 아시아(온라인) 등을 바탕으로 공유되고, 문화전당 콘텐츠 기획·창작의 원천자료로 활용된다.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자원센터, 라이브러리 파크 등이 주요시설이다.

◇문화창조원



인문·예술·과학을 융합한 문화콘텐츠를 창조·제작하고 국제 단편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공간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아시아문화창조자들의 집’이다. 1관부터 6관까지 복합전시관과 창·제작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복합 전시관은 미래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현하는 대규모 융복합 콘텐츠 공간이다. 창·제작 센터는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미래 지향적 콘텐츠가 기획·실험·제작되는 창작 거점의 역할을 한다. 또 문화창조원은 문화전당 5개원(민주평화교류원·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아시아문화정보원)의 콘텐츠 창작작도 지원한다.

◇아시아예술극장



아시아 동시대 예술(Contemporary Art)을 창작해 선보이는 문화전당을 대표하는 공연공간이다. 극장 1과 극장 2 등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는 기존양식에서 벗어나 관객 참여형·체험형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2015년 문화전당 개관축제에서는 모두 33편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차이밍량 작가는 영화관 그 자체를 공연공간에 설치해 그 안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설치예술을 선보인다. 싱가포르의 호추니엔 작가는 말레이 호랑이를 통해 아시아 식민주의 역사를 돌아보는 ‘만마리 호랑이’로 관객객들을 만난다.

◇어린이문화원



아시아문화를 기반으로 한 복합어린이 문화체험장이다.

어린이 문화원 아시아문화체험관에서는 아시아인의 삶, 과거·현재·미래 아시아 지식과 문명, 체험으로 만나는 아시아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창작교실에서는 유아, 초등저학년 등이 다채로운 창작체험을 할 수 있는 장·단기 교육이 실시된다. 어린이들은 화가양성·예술창작·문화콘텐츠창작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